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상직

존 칼빈과 존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연구

2002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이론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최영민

존 칼빈과 존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월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이론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최 영 민

최영민의 석사학위

논문을 _____으로 판정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2003년 1월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목차

I. 서론	1
A. 연구 목적 및 중요성	1
B. 연구 방법 및 범위	4
C. 연구동향	7
II. 칼빈의 구원론 이해	10
A. 하나님의 절대주권	10
B. 칼빈의 예정론	11
C. 구원의 순서	18
III. 웨슬리의 구원론 이해	26
A.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예정	26
B. 자유의지론과 선재적 은총	27
C. 구원의 순서	29
IV. 존 칼빈과 존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	46
A. 선택과 유기	48
B.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55
C. 예정론과 자유의지	62
V. 결론	72
A. 요약	72
B. 평가	73
C. 과제	75
참고문헌	77
영문초록	82

약어표

Works: The Works of John Wesley. 14 Vols. edited by Thomas Jackson.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1.

『총서』: 『존 웨슬리 총서』 9 Vols. 박봉배, 조종남 역. 서울: 유니온 출판사, 1983.

I. 서론

A. 연구목적 및 중요성

이 논문의 목적은 칼빈(John Calvin)의 예정론 및 구원론과 웨슬리(John Wesley)의 자유의지론 및 구원론을 비교평가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예정예지를 강조하는 칼빈의 구원론이 극단적으로¹ 오해될 때 도덕폐기론적 성향을 지닐 수 있음을 고찰하고, 반면에 신인협동설에 흐르기 쉬운 웨슬리의 구원론이 하나님의 은총의 주도적, 선행적 활동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칼빈주의 및 웨슬리주의의 구원론이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극단적 사상체계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크게 구원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신학적 관점이 존재한다. 바로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이다.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 견해에 따라 교단이 형성되었는데, 웨슬리를 따라 감리교회, 성결교회,

¹극단적 칼빈주의를 말하는것으로서, 웨슬리가 비판했던 대상은 칼빈의 신중심적 사상이 아니라, 극단적 칼빈주의였다. 원래 칼빈의 주장은 신중심사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옹호되기 위해 예정론이 추론되었으며, 이는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출발점이 아니라 귀결점이며, 이러한 예정론에서 인간의 역할을 극소화하고 이중교리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자들이 18세기에 영국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Hyper-Calvinist)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인간의 영적, 도덕적 능력을 극소화 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유기와 불가항력적 은혜를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율법과 복음을 극단적으로 대립시켜, 신자는 은혜의 계약아래 있음으로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18세기 영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인간의 책임과 신앙을 소홀히 하여, 도덕폐기론에 까지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극단적 칼빈주의를 강력히 부인했던 것이다.

나사렛 교회, 오순절교회 등으로 나타나고, 칼빈의 신학을 따라 여러 다양한 분파로 나누어진 장로교회가 있다. 이들은 구원관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 교회 안의 웨슬리주의 교회들은 웨슬리의 구원론에서 성화의 열매만을 강조하기도 하며 혹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웨슬리는 인간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웨슬리를 인본주의적인 사상가 또는 펠라기우스주의자(Pelagian)로 오해하기도 한다.

반면에 일부 극단적칼빈주의자들은²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벗어나 운명론적인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며, 도덕폐기론적 성향의 구원론으로 말미암는 ‘구원파’³식 구원론으로 흐르기도 한다. 아마 이러한 도덕 폐기론적인 구원론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에게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들의 영혼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서로의 오해와 무지 속에서 온전치 못한 구원론들이 나타나고 있다.

극단적 칼빈주의가 빠진 도덕 폐기론을 경계하고, 동시에 인본주의적 펠라기우스주의에 빠지기 쉬운 극단적 웨슬리주의⁴를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건전한 칼빈주의를 위해 웨슬리가 말한 성화론적 관점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극단적 웨슬리주의의와 펠라기우스적 경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 점을 이 논문

²Alan P. Sell,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김경진 역 (서울: 한신대학출판부, 1982), 158.

³한국에서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한 예로는 극동방송국에서 성서 연구를 하던 권신찬과 그 추종자들과 박옥수 등을 들 수 있다.

⁴극단적 웨슬리주의자들은 만인구원론을 주장하거나, 종교다원주의자들로서 감신대 변선환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에서 부각시키고자 한다.

한국교회 안에 신자들 중 구원파가 외치는 극단적 칼빈주의적인 구원론에 대하여 쉽게 유혹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못된 신학의 영향과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도교적 샤머니즘적 운명론적인 성향들 때문이고 해석할 수 있다. 교회는 새 사람, 새 사회를 목표로 사회를 변혁시키는 위치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성서적 관점인 ‘성화,’ 또는 ‘성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때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것을 강조할 때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사회를 향한 주요한 성서적 비전은 성결한 인간, 성결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과 웨슬리는 성화된 인간과 성화된 사회의 비전을 밝혀주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화의 길에 대한 약점이 있는 줄 알고 이 논문을 통하여 비교 보완함으로서 이제 시대가 요청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웨슬리가 강조한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⁵으로 인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의 회복, 그리고 성화의 은총으로 인한 변화된 인간상을 강조하며, 동시에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은총의 주도권을 보완적으로 강조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앞서, 칼빈주의의 구원관을 살펴보고 웨슬리주의의 입장에서 비판한 뒤, 웨슬리의 구원관에서 나타나는 모호성을 칼빈의 구원관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한다.

⁵보통 웨슬리가 말하는 선재적 은총은 영어로 ‘Prevenient Grace,’ 혹은 ‘Preventing Grace’의 두 가지 용어로 쓰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용어를 선재은총으로 번역할 것이다.

B. 연구 방법 및 범위

이 논문은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을 문헌 조사에 의해 각각 이해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칼빈 신학에 대한 연구서로는 칼빈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⁶를 텍스트로 칼빈신학의 흐름을 정리할 것이며, Berkhof의 『기독교 교리요약』⁷ 및 다수의 논문과 칼빈신학에 대한 연구서적들과 칼빈의 신학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적 상향을 연구 할 것이며, 칼빈신학의 오해로 만들어진 극단적 칼빈주의에 대하여는 웨슬리신학의 극단적 칼빈주의의 비판들을 참고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우선, 먼저 시대 순으로 II장에서 칼빈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토머스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참고할 것이며, 칼빈의 구원이 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우선 그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 전체가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틀 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틀 속에서 아주 간편하고 일률적으로 신학을 전개해 나아가는데, 그의 구원론도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다.

두 번째로 칼빈의 절대주권 속에 포함 되어 있는 귀결인 ‘예정론’을 말함으로서,⁸ 그의 신학에서의 말하는 구원론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쓸 것이다. 이 예정론을 다룸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정론의 역사를 살펴봄으로 그의 예정론의 역사적 진행을 알고, 전통적 예

⁶John Calvin, 『기독교 강요 IV』 편집부 역 (서울: 바라, 1981).

⁷Louis Berkhof, 『기독교 교리요약』 박수준 역 (서울: 소망사, 1980).

⁸N. Wyncoop, 『칼빈주의와 웨슬리신학』 한영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137.

정론과의 차이점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칼빈의 예정론이 칼빈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칼빈신학이 큰 틀이라고 하면 그의 예정론은 가장 중요한 귀결점이나 도달점 또는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예정론의 분석을 통하여 그의 예정론의 핵심인 ‘이중 예정론’을 통하여 칼빈이 말하려고 했던 칼빈주의 5대교리를 논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의 구원론의 구원순서를 말함으로서, 그의 구원론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계획된 예정론적이고 일방적인 구원론임을 밝히고자 한다. 칼빈의 구원순서를 살펴보면, 유효적 소명으로 시작하여, 신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의 순을 알 수 있으며, 그의 구원순서는 이중예정의 큰 틀 속에 간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웨슬리 신학에 대한 텍스트는 『웨슬리 총서』⁹와 웨슬리 설교들을 통하여 연구할 것이다. 송홍국¹⁰과 김홍기¹¹의 웨슬리에 대한 서적들이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웨슬리의 구원론을 말할 것이다. 웨슬리의 모든 구원론의 핵심에는 칼빈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다. 그러나 웨슬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주권에는 칼빈의 이해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이 예정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웨슬리의 하나님의 주권에는 예지의 틀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예지속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함으로서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론과 선재적은총은 당연한 결과로서 두 번째로 등장하며, 이 자유의지론과 선재적은총은 웨슬리의 신학의 큰 테두리로서 담

⁹John Wesley, 『존 웨슬리 총서』 박봉배, 조종남 역 (서울: 유니온 출판사, 1983).

¹⁰송홍국, 『웨슬레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¹¹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서울: 성서연구사, 1996).

고 있는 그릇이라 하겠다.

웨슬리는 이 자유의지론과 선재적은총을 통하여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하고 있으며, 칼빈의 신학이 도덕폐기론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칼빈의 신학이 극단적으로 갈 때에는 도덕 폐기론의 경향으로 갈 것이고, 칼빈의 신학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성화에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다음으로 웨슬리의 구원순서를 통하여 명확히 그의 구원론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하는 역할과 선재적 은총을 통하여 인간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가를 밝히려고 한다.¹²

IV장을 통하여서는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을 비교함으로서 그들의 구원론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통점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칼빈의 답변과, 그 답변에 대한 웨슬리의 성서적인 답을 통하여 논리를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먼저 비교할 것은 선택과 유기에 대한 주장으로서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는 성서적 이유와 논리를 칼빈과 웨슬리의 논쟁을 통하여 말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논쟁들을 다룸으로서, 성서적인 관점과 비판을 통하여,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웨슬리의 비교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빈신학의 핵심인 예정론과 웨슬리신학의 핵심인 자유의지를 다루겠다. 이는 자유의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말 할 것이며, 칼빈의 예정에 대하여는 그의 논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으로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예정론임을 말하겠다.¹³

¹²조종남, 『요한웨슬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103.

¹³Alan P. Sell,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구원』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12-13.

C. 연구동향

칼빈과 웨슬리의 논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가가 핵심이라 하겠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웨슬리 신학과 칼빈신학의 전반적인 흐름이라 할 것이다. 인간의 책임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때까지의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하여는 칼빈의 예정론적인 대답만이 막연하게 들려질 뿐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의무들은 무시되었고, 또 무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논문은 웨슬리의 신학의 구원론과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기초한 구원론을 통하여 이제 성서적인 구원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자 나아갈 것이다.

현재 구원론에 대하여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관점은 구원론에 있어서의 성화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며, 또한 역사신학적인 방향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론의 특징들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 먼저 칼빈과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된다. 웨슬리는 이 삶의 관점인 성화에서의 시각을 통하여, 또한 칼빈도 성화의 관점에서의 시각으로 그들의 구원론을 주장한다. 그런데 칼빈은 성화를 칭의와 구별하지만 사실상 그는 이 두개를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아니면 아부도 의롭다고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두 은혜가 분리될 수 없음을 뜻한다.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칼빈과의 칭의와 성화와 같은 면이 있지만, (이러한 공통적인 면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¹⁴이성주, 『웨슬리 신학』 (서울: 문서선교 성지원, 1994), 145.

되고 있다) 그들의 차이점에 대하여도 연구되고 있다. 특별히 웨슬리나 칼빈의 구원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서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총에 있어서 출발점이 칼빈은 하나님의 은총에 절대적으로 두고 있으며, 웨슬리는 선재적 은총론에 두고 있으므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칼빈의 구원론의 연구에 있어서 그의 신학적 작업에 대한 종류가 분류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관계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되는 분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이해로 안디옥 학파의 주장에 더 가까운 그리스도의 인격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가 펴는 성찬의 교리에도 잘 나타난다. 또한 교회론에도 나타나며 결코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보지 않는 견해에 잘 나타나며, 특히 그의 주장대로 피조물에서 철저히 거룩성을 제거한 사실과 하나님이 세상 안에 직접 역사하신다고 강조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둘째, 그의 하나님의 이해에서 힘, 권능, 능력, 도덕적 목적, 계획성이라는 견지에서 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며,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시각으로 칼빈의 예정론을 보는 경향으로서, 예정론이 그의 신학에서 중심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와 선재적 은혜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자연과 은혜를 종합적으로 보는 칼빈의 방법론, 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서로 연관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는 서로의 대립이 없다고 보며, 이 양자는 동일시 될 수 없다. 구속은 창조보다 더 나은 것이다. 구속을 단지 창조보다 나은 것이라기보다 창조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¹⁵. 넷째, 복음과 율법을 관련시켜 칭의와 성화를 관련시키는 방법이다. 이 둘의 분리는 없다

¹⁵H. Henry Meeter, 『칼빈주의』 박윤선, 김진홍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34.

고 보며, 서로 다르나 혼동은 안 되며, 칭의와 성화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견해이다.

또한 칼빈의 구원론에 대한 연구로는 바르트(Barth, Karl)를 들수 있는데 그는 예정론이라는 말보다 '선택론'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칼빈의 예정론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첫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에서의 하나님의 자유를 말하고 둘째, 하나님의 자유의 결정에 숨어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며 셋째,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속의 하나님의 의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론은 '선교적 차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서, 그는 전통적인 이중예정론을 부인하게 되며 예수그리스도야 말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선택된 인간이라는 의미로 이중예정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관점에 동조하는 많은 논문들이 나왔으며 이를 칼빈주의자들은 그의 선택교리는 선택없는 언어의 기교라고 비판하며, 동시에 그의 자유의지론도 성경적 기반을 상실한 맹목적 자유의지론이라고 말한다.

포스트 모던 사상의 견해로는 서양철학에 기반을 둔 신학의 실패로 인한 동양철학적 기반으로의 구원론을 말하고 이는 종교다원주의로서의 구원론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종교의 같은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에서 이 논문은 네 번째 관점에서 나온 구원론에 대하여 웨슬리의 비교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웨슬리는 그의 신학에서도 나타나듯이 극단적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론에 대하여 철저히 반대하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본다. 이는 웨슬리의 신학의 핵심인 그의 구원론이 마르틴 루터나 칼빈의 구원론에서 보듯이 인간의 수동적이며 노예의지적인 구원론에서 발전하여, 진화론적인 측면에서의 구원론의 진보라고 생각한다. 그의 구원론은 인간참여의 하나님 중심적 구원론으로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웨슬리에 대한 연구의 많은 분야가 이렇게 중

교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발달한 구원론이라는데 동의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동원하여 웨슬리를 연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민중 신학적 입장에서 보는 웨슬리의 신인협동설을 통한 인간 편에서의 구원론들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면으로서는 그의 교회론적 모델로 속회의 연구모델을 셸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도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웨슬리의 연구의 가장 핵심인 조직신학적 분야의 그의 구원론에서 본 칼빈의 구원론에 대한 견해를 다름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종교적 위기를 맞이한 이 시대에 더욱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웨슬리 신학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의 종파적, 교파적 신학의 연구단계에서 이제 초교파적, 에큐메니컬 신학의 연구 단계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로는 런연(Theodore Runyon)의 해방신학과 의 만남을 시작으로 아우틀러(Albert Cook Outler)의 초교파적 시도를 통한 실천적 신학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이 동방교부신학에서 웨슬리의 뿌리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이는 웨슬리의 구원론을 개인적 구원론이라는 틀을 비판하면서 ‘창조-새창조’라는 큰 틀로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이다. 이는 해방신학과 의 만남과 카톨릭과의 만남을 통하여 동방교부들의 신학이라는 틀로 에큐메니컬 신학을 형성한다.

II. 칼빈의 구원론

A.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핵심을 이룬다고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사상은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며, 칼빈의 신학 전반에 흐르는 예정론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사상을 옹호하기 위해 귀결된 사상이다. 이를 칼빈신학의 중요교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라고 부르는데 칼빈신학에 있어서 중요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사상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어떠한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의해서만 인간의 구원을 이룬다고 강조한다.

인간은 절대적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할 수 없는 파괴된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의 역사가 강조된다. 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주도적인 힘으로 인해서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한다. 이러한 예정론은 구원받을 자를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어거스틴의 예정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¹⁶

¹⁶이후정, “Calvin and Wesley on Predestination,” 『신학과 세계』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1991), 35.

B. 칼빈의 예정론

칼빈의 예정교리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사람과 그 은총에 참여치 못할 사람들에 관한 교리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 하신 예정을 말한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결정 하셨다. 모든 것은 동일한 조건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영생으로 예정되었고, 어떤 이는 영원한 파멸로 예정되었다. 각자는 이 둘 중의 어느 한편으로 창조되었다. 즉 생명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죽음으로 예정되었다”¹⁷

이 예정은 이방인들의 신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운명의 신이나 맹목적이고 숙명론적인 악령들과는 같지 않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에 따라 은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영원불변 하신 계획으로 하나님은 단일회적으로 구원에 용납 될 사람과 파멸로 저주받을 사람들을 정하셨다. 선택 받은 사람에 관한 이 계획은 사람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없이 다만 하나님의 넓으신 은총에 의거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의롭고 공평하고 심원한 판단으로 생명의 문이 닫혀 지고 말았다. 선택을 소명의 증거로 생각한다. 동시에 의인을 그들의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선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증거라고 생각한다.¹⁸

이와 같이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변을 따라 그의 계획안에

¹⁷John Calvin, 『기독교 강요 IV』 392.

¹⁸*Ibid.*, 398.

서 그의 은총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칼빈의 예정에 따라 인간의 의지는 노예적인 의지이며, 성령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의지이다.

1. 전통적 예정사상

교회사상에 나타난 예정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의 예정사상은 약 천년 동안 교회의 예정신앙을 지배하였다. 그에 의하면 구원은 신의 은사이다. 이 견지에서 그는 예정을 생각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제적 체험을 중요시 했다. 복음이 전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나타남을 발견 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는 이 사실이야말로 신의 선택과 관련시켰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주가 준비하였다고 구분하였는데 ‘그가 바로 신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자비와 심판에 의해서 구분하셨으며, 그가 죄인을 택한다는 것은 자비의 행동이고, 그가 죄인을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은 그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며 한쪽이 어느 한쪽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이다. 그의 예정론은 이래서 이중예정론과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영생에로의 선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버림 받은 것이라는 것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토마스아퀴나스는 섭리론의 일부로서 예정론을 다루고 있다. 그는 예정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므로 이 하나님의 내리신 질서 즉 결정은 사람이 날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마음과 의지 안에 선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영생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신은 어떤 사람을 버렸다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정과 버림을 서로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다. 예정은 신자들이 가지는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축복을 의미하나 버림이란 불신자에게 장차 주실 영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버림은 신의 소극적인 뜻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시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그가 범죄 하면 그를 영벌로 이끄신다는 것이다.¹⁹

그러므로 그의 예정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의 공로에 대하여 영광을 주시기로 예정하시는 동시에 신은 공로가 영광을 가지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정을 받을 만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도 없다고 강조한다. 그 원인은 신의 선의에서 찾으려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정은 정확히 그 목적을 이룬다고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예정론은 표현하는 방법과 논리진행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 칼빈신학에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

칼빈에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17세기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예정론을 신학적인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그들의 신학체계의 대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을 취급한 형식과 기독교강요의 구조를 보면 예정론은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 아니라 그가 은총을 논할 때 논리적으로 도달한 귀결점으로서 그의 신학의 열매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조와 형식상 예정론은 일부분이지만 칼빈신학의 전체에서 예정론의 정신과 성서의 근본적으로 이해된 주제, 하나님 의 선하신 뜻과 그의 자유를 표현하였으므로 칼빈신학에 있어서 예정

¹⁹*Ibid.*, 427.

론의 위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이다. 칼빈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은총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예정론신학이다.

3. 이중예정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교리와 어거스틴의 예정교리를 이어받아²⁰ 하나님의 절대은총 교리로 보아 멸망한 자도 하나님이 멸망으로 선택했다는 설명을 첨가하므로 이중예정론을 말한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인류 각 개인의 형성에서 그 원하는 바를 결정할 때 근거하여 그의 영원한 칙령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으로 창조되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로 미리 작정되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동시에 이들 중 하나를 목표로 창조되었다. 곧 생명이나 사망에 예정되어있다”²¹고 하였다.

칼빈의 말 속에는 이중예정이란 표현은 없으나, 그의 예정론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는 가운데 이중교리를 요약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예정이라 부른다. 그 분은 자신의 섭리에 의해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모든 사람은 똑 같이 창조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에 처해지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 중 하나로 운명지어지게 된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²²

²⁰안수도, “칼빈의 예정론”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78), 87.

²¹F. H. Klooster, “칼빈의 예정론,” 『칼빈총서 8』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8), 280.

²²*Ibid.*, 21.

이와 같이 칼빈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와 유기될 자를 이중으로 선택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이중적인 예정교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예정론에 대하여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를 겸허하게 한다”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택함 받은 자들은 “나의 구원을 절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만 결정되는 것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전적 행위인 사랑에 대해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한다고 칼빈주의자들은 말한다. 이중예정교리는 하나님의 뜻과 절대성을 적극 긍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과 하나님의 은총의 절대성을 설명하는 것이다.²³ 칼빈의 이중예정론은 인간의 구원²⁴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업적이다. 따라서 선택의 본래 동기는 하나님자신 안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칼빈은 철저히 인간의 공로나 예지를 배격하며,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한 예정을 강조한다.

칼빈의 예정론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기독교강요』 3권 제 22장 6-13절에서 예정론의 반론들과 답변을 진술하는데, 반론들에 대하여 그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결단 속에 있는 예정의 근거가 성서의 증언이 있는 것으로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구실로 말씀에 대한 충성으로의 선택론을 전개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주권자이시니 아무 말도 말라는 것이다.

²³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84), 162.

²⁴안수도, “칼빈의 예정론,” 86.

4. 칼빈의 신학사상

칼빈의 이중예정론의 신학의 뼈대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있다. 첫째, 전적타락 또는 전적 무능력으로 칼빈주의자가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고 비뚤어졌으며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이 ‘전적’이란 단어는 인간 존재의 전부가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단어이며 이런 타고난 부패의 결과로서 자연적인 인간은 영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라고 말하며 영적인 무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죄인이 영적으로 너무나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적합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영적인 영역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선을 행하기에 불가능하다. 자연적인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있다. 그는 사단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진리에 눈이 멀었으며 자신을 구원하기에 무능하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 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의 의지는 죄에 사로잡혀있다. 라고 말한다.²⁵

둘째, 무조건적 선택으로서 아담의 범죄로 그의 후손들은 죄악 되고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세상에 오게 된 것이다. 타락한 피조물로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진노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특정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어떤 자들은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멸망토록 내어버리신다. 이 부분에 대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성을 의심할 권한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기에 그러하다.²⁶

²⁵D. N. Steele & C. C. Thomas, 『칼빈주의의 5대강령』 고일성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34.

²⁶*Ibid.*, 43.

셋째, 제한적 속죄론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수행하시고 저들에게 미칠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를 받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게 되고 모든 죄와 정죄 받는 일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하여 우리 죄와 죄의 벌은 영원히 옮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면 완전한 의를 받으며 모든 죄와 정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는 행함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이 그 계획과 성취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인들을 완전 구속하시고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신다.²⁷

넷째, 불가항력적 은총 또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으로서 죄인으로 죽었던 죄인이 중생으로 새롭게 되고 신앙과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의 내적 초자연적 소명으로 그리스도에게 오게 된다. 일반적 외적 소명이 이따금 거절당하여도 이 성령의 내적 특수소명은 결코 죄인을 회개시키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이 특수소명은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선민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성령이 선민에게 주는 은혜는 거절할 수 없고 그리스도안에 참된 신앙으로 인도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²⁸

다섯째, 성도의 견인으로 선택된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이 될 뿐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새로워진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믿음을 갖게 된다. 중생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결합된 모든 사람은 영원히 그 분 안에서 보호된다. 어떠한 것도 그들을 영원하고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 그

²⁷*Ibid.*, 57.

²⁸*Ibid.*, 72.

들은 영원한 영광을 얻기로 예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 성도들이란 마지막 까지 견디어 낸 자들, 성령에 의해 구별된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믿음을 저버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은혜에서 떨어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거짓 성도들이기 때문이다.²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기뻐 받으시고 성령으로 확실히 불러 거듭나게 하신 자들을 그 은혜 받은 자리를 아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굳게 지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다.

C. 구원의 순서

칼빈의 구원론은 예정론의 맥락에서 있으므로 구원의 순서가 애매하지만 그의 신학의 예정론적 입장에서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역사를 인간의 마음에 적용시키는 순서로서³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므로 그러한 순서로 연구한다.

1. 유효적 소명

칼빈의 구원의 순서가 예정론에 기초로 함으로 예정 다음에는 자연히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온다. 이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이기도하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숨겨두셨던 선택의 부르심을 표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이들을 이미 아들의 위치에서 택하셨으나 칼빈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이 위대한 공를

²⁹*Ibid.*, 85.

³⁰김성환, 『칼빈주의 해설』(서울: 엠마오, 1984), 201

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자녀로 삼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또 부르심으로 그들을 가족가운데로 받아들이시고 자신을 그들에게 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성서는 선택의 부르심을 결부시켜 말함으로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공훈 외에 아무것도 구해서는 안 됨을 충분히 시사한다.³¹

부르심의 방법은 은혜에만 의존한다. 부르심은 일반적 소명과 유효적 소명으로 나누는데 일반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외적 말씀전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자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뻗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 그들이 복음의 초청에 응하게 되는 은총을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오직 선택된 자들이라도 효과적인 부르심이 될 것이다. 일반적 부르심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죄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의지는 언제나 그 부르심을 거절하며 또 그래서 그들은 악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된다.³²

선택된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것이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선언하기를,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만으로, 조금이라도 인간 속에 예견되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롭게 됨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르심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총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³³

³¹John Calvin, 『기독교 강요 III』 436.

³²Dale M. Yocum, 『웨슬리 신학과 칼빈신학의 비교』 손택구 역 (서울: 보이스사, 1998), 138.

³³*Ibid.*, 138.

2. 신생

소명과 중생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³⁴ 죄인으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과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암시가 되어있다. 중생은 무엇이든지간에 죄인에 의한 아무런 참여 없이 죽은 영혼위에 역사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이다. 믿음은 중생에 앞서지 않고 오히려 중생을 뒤 따른다. 이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은 영적으로 살게 되고, 위로부터 낳게 된다.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써만 생겨지는 일이다. 즉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의한 예정,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의 5대 교리중의 하나님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해하여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적 은혜란 복음의 부름에 유효한 소명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말한다.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절할 수 없고 그리스도안에 있는 참 신앙으로 인도되는데 결코 실패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엄밀한 의미로 중생은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주시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중생은 인간의 근본적 변화로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성화와 같은 점진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³⁵ 중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것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힘 받아 그의 영을 통하여 살고 그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된다. 또 중생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므로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타락한 성품이 못쓰게 된 사건이다. 이 후에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체하게 된다.³⁶ 그것은 그리스도안

³⁴Louis Berkhof, 『기독교 교리요약』 박수준 역 (서울: 소망사, 1980), 137.

³⁵*Ibid.*, 138.

³⁶W.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25.

에서 우리와 교제를 추구하시는데, 죄 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³⁷ 이런 중생의 목표는 신자의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과 조화 및 일치로 나타내는데 있고, 그들이 자녀로 영접되었음을 확신케 하는 것이다.

3. 믿음

칼빈의 구원론은 철저히 구원의 신앙만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의 신앙관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신앙이요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신앙이라고 말한다.³⁸ 칼빈은 신앙을 정의하여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히 하고도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그리스도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신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에 계시되었으며 우리 마음에 인친바 된 것이다”³⁹라고 한다. 믿음은 선택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앙의 목적지이며 그리스도는 그 나아갈 길이다.⁴⁰ 신앙은 인간이해가 아니라 확실성에 의해 의존하는 것이다. 칼빈은 신앙의 열매를 화평으로 보며 신앙의 처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마음속에 떨어지면 벌써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무리 약한 신앙도 신앙으로서 확실성을 갖는 것이다.⁴¹ 그는 예정론에 입각하여, 신앙으로 신자는 궁극적 승리를 하며 불신앙이 신자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³⁷*Ibid.*, 125.

³⁸박해경, 『기독교 교리 신학사』 (서울: 이레서원, 2000), 259.

³⁹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I』 14.

⁴⁰*Ibid.*, 15.

⁴¹*Ibid.*, 37.

없다고 본다.⁴² 칼빈이 말하는 믿음은 죄인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천국자녀가 되게 하는 신앙이요, 칭의신앙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신앙이다.⁴³

4. 회개

칼빈은 회개가 언제나 신앙에 따라서 올 뿐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돌이키는 것이며, 그것이 바르고 거짓 없이 하나님 경외에서 나오고 육과 낡은 자아를 죽이고 영이 소생하는 데서 나타난다.⁴⁴ 그러므로 회개는 양면성이 있다. 죄를 인식하는 것과 그 받을 심판을 의식하고 영혼의 슬픔과 고통으로 낙담하는 것이 회개의 첫째 부분으로 통회라 부르는 것이며, 새로 사는 것은 신앙에서 일어나는 위로를 말하는데 이는 사람이 죄를 인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보게 되며 자신을 분기시켜 용기를 되찾게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⁴⁵

칼빈은 회개를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두 가지 형태로 보며 율법적 회개로는 죄인이 뼈아프게 생각하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 상처를 위한 약으로, 공포에 대한 위로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⁴⁶ 회개와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칼빈은 이를 분리시킨다. 회개의 뜻은 신자의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⁴²*Ibid.*, 38.

⁴³박해경, 『기독교교리신학사』 261-262.

⁴⁴John Calvin, 『기독교 강요 III』 69.

⁴⁵*Ibid.*, 68.

⁴⁶*Ibid.*, 68.

며 아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나다 고 본다. 이것은 옛 사람이 죽는 사건을 말하며,⁴⁷ 이 회개는 순간의 역사가 아니라 죄의 투쟁에 있어서 신자의 생활 중에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허물은 씻었으나 죄의 사실은 정욕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이다.⁴⁸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의무와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의무이며, 중생, 성결, 순결 등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자기 생활을 하나님의 법의 표준으로 기준하여 회개한 증거를 분명히 보이는 것으로 성령께서 지적하는 마음의 근원적 불결을 정죄하는 내적 회개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는 외적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⁴⁹ 이 회개는 인간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가능하므로 이 회개 역시 하나님의 독자적 행동에 기인한 것이다.⁵⁰ 회개는 지, 정, 의의 요소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지적인 회개를 통하여 정적인 회개로, 그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보여 지는 단계에 이른다고 한다.

5. 칭의

예정하고 택하사 부르신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은 칭의에서도 유효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어 하나님을 심판주로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로 모시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되어 삶의 결백과 순결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중생에서 말하였으며, 칭의의 언급은 하나님의 긍휼로 값없이 의를 얻는 신앙이 선행을 결여하지 않으며 성도에게 선행이 무

⁴⁷*Ibid.*, 69.

⁴⁸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 146.

³⁹*Ibid.*, 146.

⁵⁰Louis. Berkhof, 『기독교교리요약』 739.

엇인가를 이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악하고 구원을 확립해 주는 기초가 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⁵¹

칭의의 개념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로 간주되고 용납되는 것이다.⁵² 또는 이것은 의의 전가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음을 말한다.⁵³ 그러므로 칼빈은 거듭난 자의 선행으로도 의를 가져올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만이 의인됨을 말한다.⁵⁴ 칭의는 우리의 근거 밖에 있다. 오직 그리스도안에만 있다고 말한다.

칼빈은 유죄한 인간을 무죄하다고 하는 칭의가 법적 관계로 전환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⁵⁵ 곧 심판자 하나님이 유죄 고소 받은 자를 용서하는 사법행위이다. 의인과정은 최고 재판자로 말미암아 은혜의 용서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칭의의 목적은 하나님만 의로우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전혀 수동적이며 오직 수동적으로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다. 칭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성부께 복종하신 그 순종을 믿음으로 택정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6. 성화

칭의의 상태는 하나님께 헌신된 성화의 생활을 요청한다. 성화란 죄인을 순결하게 하시고 죄인의 전 성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선행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은혜의 작용이다.⁵⁶ 칼빈은

⁵¹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I』 197.

⁵²*Ibid.*, 198.

⁵³*Ibid.*, 200.

⁵⁴*Ibid.*, 217.

⁵⁵*Ibid.*, 226.

죄용서와 성화 또는 의인과 중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합일⁵⁷로 연계 되는 최상의 선물이다라고 말한다. 즉 우리안의 그리스도의 내주는 신앙을 통해 성령께서 이루심을 말하고 그 뒤에 먼저 성화를 말하고 의인교리를 발전시켜 나간다. 칼빈은 신자들도 범죄하여 그것이 중생한 사람 속에 나타남은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며 불같은 정욕이 솟아나와 범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라 한다. 이는 어거스틴의 죄악 론이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죽을 육체에 거하는 한 연약하므로 꾸준히 신자는 완전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칼빈은 성화를 순간적이 아니라 점진적 성화만을 말함으로서 웨슬리의 점진적이며 순간적인 성화의 완성의 단계를 말하고 있지 않다.⁵⁸

7.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택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뿐더러 그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한다는 구원보장설이 된다. 이는 신자의 활동이기보다 하나님의 일방적 활동으로서, 성령이 신자의 내부에서 이루시는 구원완성을 위한 작용이다. 이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의 이유 이기도하다. 참신자는 결코 타락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웨슬리의 타락과는 매우 대조된다.

8. 영화

구원 서정의 마지막은 영화이다. 즉 택자의 사후에 있을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최종 종말에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며 이를 성경은 현재적 위치에서 미래에 있을 영화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⁵⁶Louis. Berkhof, 『기독교 교리요약』 156.

⁵⁷황성규, 『칼빈신학의 현대적 의의』 (서울: 한신대출판부, 1978), 93-94.

⁵⁸*Ibid.*, 99.

Ⅲ. 웨슬리의 구원론

A.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 예정

웨슬리도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칼빈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 그런데 칼빈과 웨슬리는 주권을 이해하는 방법에 차이를 가진다. 웨슬리와 칼빈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통치자로 계심을 믿었다.⁵⁹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예정과 구원으로 설명하는 칼빈과 달리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사상으로 이해했다.

웨슬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른 속성들, 곧 정의, 사랑, 불변성, 신실성과의 연관성을 주목한다. 만물의 섭리 자이신 하나님은 그 섭리를 제한시키시지 않는다. 웨슬리에게서 창조주, 보존자,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자리와 함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⁶⁰ 웨슬리는 정죄의 선언과 더불어 공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이다.

바로 의 강박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유기인가에 대하여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는데, 인간에게 선재적 은총으로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바로의 굳어짐은 자신이 원함과 회개치 않음에 기인하며, 그로 인해 바로는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예서는 후에 죄를 깨닫고 야곱과 화해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지도 모른다. 즉, 웨슬리는 처벌의 이유가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 때

⁵⁹렘 23:24, A. C. Outler,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John Wesley* (New York: Oxford, 1964), 453-54.

⁶⁰합3:2.

문임을 이야기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공의가 덧붙혀 짐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웨슬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적 예정’이다.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절대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다 작정하신다고 주장하나 웨슬리는 “예정에 대하여”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예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태양이 비취므로 태양이 빛날 것을 추측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앎으로 태양이 빛나는 것이 아님을 예로 들었다. 이렇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이 만물을 일견에 다 보시는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는 것을 결정하셨다.⁶¹ 웨슬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손상이 없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 됨 없이 예정을 이해하고 있다.

B. 자유의지론과 선재적 은총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하나 웨슬리는 신앙과 불신앙이 선택의 조건임을 말한다. 선택의 조건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곧 자유의지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창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해하는 능력, 의지를 실천하는 자유와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다.⁶² 이 자유 없이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고, 의지와 자유가 내포되어 있다. 회복된 자유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가분의 관계인

⁶¹막16:16.

⁶²John Wesley, “On Divine Providence,” *Works*, Vol. 2, 541.

것이 선재적 은총이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의 선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구원을 받아들일 능력을 회복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 은총이다.

웨슬리의 선재적 은총과 칼빈의 일반은총에는 차이점이 있다. 인간 안에 있는 악의 경향을 억제하고, 사회를 있게 하는 은총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렇지만 칼빈의 일반은총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의 이성, 자유의지를 말하나, 웨슬리의 선재적 은총은 구원의 여명으로서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점에서 다르다. 웨슬리는 선재적 은총으로서 이성, 양심, 자유의지를 말한다.

웨슬리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극단적으로 이성을 찬양하는 것을 비판하고, 믿음, 소망, 사랑, 선행의지를 만들지 못하는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러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이성을 강조하였다. “진실한 종교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만, 이성이 없다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설명하는데 놀랍게 사용될 수 있다”며⁶³ 이성이 없다면 사도신경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선재적 은총으로서 양심을 말한다. 선재적 은총인 양심은 본성이 아니라 율법과 만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웨슬리는 양심을 세 가지로 나누면서 양심은 선재적 은총의 도우심을 받아 성질, 삶, 생각, 말, 행동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⁶⁴

마지막으로 웨슬리는 선재적 은총으로서 자유의지를 말한다. 먼저

⁶³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서울: 성서연구사, 1996), 106.

⁶⁴첫째,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며 단절을 막는 선한 양심. 둘째, 말씀에서 떠날 때 반성하고 탄식하는 양심. 셋째, 성령의 경고에 음성을 못 듣는 나약한 양심.

구원을 사모하는 열심, 다음에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결단, 끝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유의지 적 참여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개의 신앙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선재적 은총으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회복시키신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론은 예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보다 앞서는 은총인 선재적 은총에서 시작하는 것이다.”⁶⁵ 이와 같이 웨슬리는 선재적 은총에 의거하여 인간이 책임을 지는 자유의지 적 존재임을 주장했다.

C. 구원의 순서

웨슬리의 신학의 핵심은 구원론이다. 그럼으로 웨슬리가 말하는 그의 구원론의 순서는 그가 말하는 구원론에 대하여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다.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현재의 것이며 믿음을 가진 자는 실제 과거의 죄책, 죄의 세력과 두려움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⁶⁶ 이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거룩하고 겸손, 온유, 참는 사랑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결국 마음의 모든 죄가 씻겨 순수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 후 계속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 까지 성장한다.⁶⁷ 이런 구원이해에서 은총 관, 의인, 성화교리가 나왔는데 웨슬리는 성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⁶⁸ 또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

⁶⁵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116.

⁶⁶John Wesley,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총서 I』 23-25.

⁶⁷John Wesley “우리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대하여,” 『총서 II』 450-451.

⁶⁸나원용, “웨슬리의 구원론의 특징,” 『신학과 선교』 7집 (부천: 서울신학대학 출판부, 1981), 43.

으로 의뢰하는 것,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구원의 순서를 다양하게 말하였으나 사상의 원숙기였던 1765년에 발표한 ‘성서적 구원의 길’이란 설교 문에서 말한 것을 설명한다.

1. 선재적 은총(Prevenient Grace)

웨슬리는 칭의는 믿음을 통하여 받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칭의 받는 믿음은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거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스스로의 구원에 대하여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인간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 밖에서부터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재은총의 시작이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은 것이다. 믿음이 칭의의 은총을 주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칼빈의 예정론과 같은 도식을 말하게 된다. 그러나 웨슬리는 위의 질문들에 대해 다른 답을 내린다. 즉 믿음을 받기 위해 인간이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믿음의 선물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면 서도 동시에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아야 한다. 이 능력을 웨슬리는 선재적 은총 또는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표현한다. 이 은총은 모든 능동적인 응답의 근원이며 선한 욕망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하는 욕망이 이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또한 이 선재적 은총은

받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모든 자연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여된 응답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선재적 은총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역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점점 증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교화하는 빛, 즉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시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선재적 은총은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것 전부를 말한다. 이런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질식시키거나 잊어버리거나 또는 부인한다.⁶⁹

선재적 은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확신을 순간이나 마 갖게 하며 우리의 제일가는 소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처음으로 동터오듯이 느껴지는 빛,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범죄 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음으로 연약하게나마 일시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며 이것들은 모두 생명을 향한 경향성, 어느 정도의 구원,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감지하지 못하였던 눈멀고 무감각한 마음으로부터 건짐 받는 것의 시작부분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인간의 응답을 가능케 하며 인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웨슬리는 이와 같은 체험으로 인간이 참회에 이르게 되며 이것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한 단계가 된다고 믿는다.⁷⁰ 그러나 이 선재 은총은 구원에 이르는 첫 출발일 뿐이다. 이 선재적 은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빛은 양심과 양심의 활동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⁶⁹John Wesley, “성서적 구원의 길,” 『총서Ⅱ』 371.

⁷⁰S. Harper, 『현대인을 위한 존 웨슬리의 메시지』 김석천 역 (서울: 도서출판 세북, 1988), 42.

있다.

웨슬리는 이 양심을 자연적인 것이나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선재적 은총으로 본다.⁷¹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 빛을 꺼버리지 않는 한 은총의 역사밖에 있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적든 많은 이 선재적 은총을 가지고 양심의 빛을 거역했을 때 불안을 느낀다. 인간은 은총이 없이 범죄 한 것이 아니고 은총을 활용치 않아 범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재적 은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선재적 은총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시며 이 역사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웨슬리는 주장한다. 또한 칼빈주의적 선택적 예정론과 웨슬리의 보편 은혜 론의 차이점을 무시해 버리지만 이러한 차이는 무시해 버리고 넘어 갈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 웨슬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전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선재적 은총은 구원의 시작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으며 웨슬리의 구원론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어거스틴이나 종교 개혁가들의 신앙과 일맥상통함을 말하는 것이다.⁷²

그동안 학자들은 이 선재적 은총을 설명하면서 웨슬리 신학의 특징 중 하나가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웨슬리의 구원론에서 인간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로로 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우리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 서서”라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활동하시니 인간도 일해야 한다고

⁷¹H. Lindström, 『웨슬리와 성화』 전종욱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4), 62.

⁷²조종남, 『요한웨슬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100.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인간편의 책임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웨슬리는 선재적 은총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의인에 이르게 됨을 주장하는데⁷³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문제를 놓고 칼빈과 같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은 인정하지만 차이점은 선재적 은총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인간이 선을 향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이지 인간의 공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구원의 책임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좌우되므로 책임이 하나님이 되지만, 웨슬리는 모든 사람이 선재적 은총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에 인간이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이다.

선재적 은총으로 인간이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또한 인간이 선한 의지를 가지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는 선한 행위들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인간은 그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선한 의지를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선한의지를 갖도록 역사하셨고 인간은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을 웨슬리의 구원론이 신인협동설이라고 말하나, 사실상 이것조차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행하셨고 우리는 단지 순종한 것뿐이다.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행동(act)이다. 따라서 인간의 공로는 전무하다.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공

⁷³박장균, “웨슬리의 은총론,” 『신학과 선교』 1집 (부천: 서울신학대학출판부, 1972), 75.

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도 오직 믿음뿐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간의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므로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로 돌려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활동에 아무런 반응이 없이 구원받는단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생물이나 기계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에 반응한다면 이 인간의 반응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react)한다는 것이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에 정신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나타나는 순종을 뜻한다. 즉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감동되어져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순종을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승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에 협력자로서 인간이 스스로 독립된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재은총을 통한 자유의지의 발현으로 인한 구원에서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아야 한다.

윌리엄 캐논(William R. Cannon)은 웨슬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지만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이려는 의사를 갖는 것은 인간의 행위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응답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한다.⁷⁴ 캐논은 인간의 자신의 행동으로서 칭의 은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제의를 수락하든지 거절하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인간구원의 최종적 결정은 인간의 “자연적 자유의지”의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⁷⁴W. Cannon, 『웨슬리신학』 남기철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6), 136.

2. 확신의 은총(Convincing Grace)

웨슬리는 선재적 은총으로 비롯된 구원의 시작이 이제 깨닫게 되는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⁷⁵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보는 것이다.⁷⁶ 따라서 회개라는 개인의 구원의 과정도 인간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선재적 은총을 활용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위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게 되며 자신이 죄인임을 확신하게 되며, 이제 처음으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율법을 알게 하신다. 이 율법을 지키면 복 받고, 어기면 징죄와 처벌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할뿐더러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간절하게 되나, 자기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나를 건져내실 유일한 한분이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웨슬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즉 확신의 은총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 자각을 한 인간은 구원은 “확신적 은총”에 의해 수행되는 상태를 말하고 이 은총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죄의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보다 깊은 자각을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전에 죄에 대한 책임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신 안에 있

⁷⁵John Wesley, “우리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대해,” 『총서Ⅱ』 450.

⁷⁶조종남, 『요한웨슬리의 신학』 124.

는 모든 가능성들을 포기하게 된다'⁷⁷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회개이다. 이 회개는 이제 선행은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 단계를 믿음의 단계로 부르지 않고 믿음은 회개 후에 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죄인인 인간을 참회로 이끄시는 것이다. 이는 웨슬리의 독특한 이해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은 참회 또는 확신을 신앙보다 앞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웨슬리의 구원론은 초기의 종교개혁자들에게 있는 참회의 이해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다. 초기 개혁가들은 신앙 후에 참회가 온다고 말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참회의 업적이 구원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업적은 참회의 신앙의 열매로서 의인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요소일 뿐이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회개를 철저히 죄를 누우치는 율법적 회개, 즉 믿기 전의 회개는 칭의 이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칭의의 은총(Justifying Grace)

확신의 은총으로 죄인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데⁷⁸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역사이다.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칭

⁷⁷John Wesley, “우리의 의가 되신 주,” 『총서Ⅱ』 363-364.

⁷⁸John Wesley,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대하여,” 『총서Ⅱ』 450.

의를 얻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러한 단계를 칭의라 한다.

첫째, 칭의라 부르는 단계를 말하며, 이는 죄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으로, 죄의 용서⁷⁹와 같은 말이며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수납되는데 필요하다.⁸⁰ 광의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를 믿는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죄책과 형벌에서의 해방이요 또한 그의 마음속에 형성된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세력 전체에서의 해방을 말한다.

둘째, 칭의의 기초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범죄 함을 인하여 자기 영혼을 다 쏟도록 행하시고 고통당하신 모든 것이며,⁸¹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안에서 화해하시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르도록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말한다.⁸²

셋째, 칭의의 조건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유일한 조건⁸³으로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어이다. 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 사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럼 으로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어 내적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확고히 의뢰하는

⁷⁹*Ibid.*, 450.

⁸⁰John Wesley, “성서적 구원의 길,” 『총서 II』 372.

⁸¹*Ibid.*, 372.

⁸²John Wesley, “이신득의,” 『총서 I』 81-84.

⁸³*Ibid.*, 160.

믿음이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

넷째, 칭의의 열매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칭의 된 자에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오며, 즉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또한 웨슬리는 칭의가 실제 죄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화에서 이루어지며, 칭의는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 속에서 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⁸⁴ 이 칭의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개선이며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라지게 된다.⁸⁵

4. 의인이 됨(Justification)

첫째, 의인의 조건으로는, 웨슬리에 의하면 의인, 곧 칭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오직 ‘믿음’ 밖에는 없다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고 뉘우쳐 참회하게 되는데, 참회의 열매는 믿음을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제 믿음을 간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의인의 조건은 오로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로서 칭의를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면서, 또한 그와 동시에 회개를 동반한 의인이 되는 길도 오직 믿음임을 말하고 있다. 이 믿음은 또한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이 믿음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서 그 사람의 내적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확고히 의뢰하는 믿음이다.

둘째, 의인의 내용으로서 의인은 속죄, 곧 죄의 용서이다. 사망선

⁸⁴John Wesley, “이신득의,” 『총서 I』 84.

⁸⁵John Wesley, “신생,” 『총서 II』 203.

고를 받은 죄인을 생명으로 옮겨 놓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로 이루어진 구원 받은 상태이다.

그럼 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 얻는 구원은 무엇인가? 첫째, 현재의 구원이다. 둘째, 모든 죄에서의 구원이다. 셋째,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현재의 구원이란 현재 이 땅위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모든 죄에서 구원이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습관이나 고의적인 죄를 그리고 죄된 욕망으로부터 나온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정죄한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두려움에서 해방 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인 받은 사람의 실제 생활이 사실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며 이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단계이며 이로서 유죄를 선고받지 않는다.

5. 신생(New Birth)

웨슬리는 칭의와 신생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순서적으로 칭의가 먼저이고 칭의 받는 순간에 거듭나는 신생이 이루어지며 그 순간 성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후에야 비로써 성령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주신 역사이고 신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타고난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이다⁸⁶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외적인 관계성을 변화시킴으로 원수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신생은 인간의 내적 영혼을 변화시킴으로서 죄인이 성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이다. 그리고 의인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신생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의인은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신생은 죄의 세력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둘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이처럼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신생의 본질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끄실 때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변화 즉, 그리스도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이다. 이는 사람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며 자연적인 출생과 흡사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은총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⁸⁷

둘째, 신생의 이유로는 인간이 타락으로 본래 소유한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거룩함보다 악마의 형상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이처럼 인간본성이 전적 타락하였으므로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나야 하기 때문이다.⁸⁸

셋째, 신생의 필요로는 성화를 위해, 영원한 구원과 이 세상 및 장차 올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해 신생은 필요하다. 곧 다시 태어나 본성의 경향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⁸⁹

넷째, 신생과 세례로는 세례는 외적인 역사, 가시적인 사건, 육신

⁸⁶*Ibid.*, 203.

⁸⁷*Ibid.*, 206-210.

⁸⁸*Ibid.*, 204-206.

⁸⁹*Ibid.*, 210-212.

을 깨끗케 하는 행위이나 신생은 내적 역사, 불가시적 사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신생은 항상 세례를 수반하지 않는다.⁹⁰

다섯째, 신생과 성화로는 신생은 성화의 일부분이며 성화의 문 곧 통로이다. 갓난아기가 성장해야 하듯이 신생하면 그 후부터 내적, 외적인 성화가 시작된다.⁹¹

여섯째, 신생의 표적으로는 신생하는 사람에게서는 큰 변화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데 이러한 증거로는 먼저 ‘화평’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며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상태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세력에게도 칭의의 상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다.⁹²

또한 신생한 자에게는 그의 속에서 ‘소망’이 나타난다. 이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상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한다. 이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분깃을 기다리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신생한 자에게는 ‘기쁨’이 생긴다. 그리스도안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 죄를 속함 받은 사실에 대하여 굉장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즉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 해 주시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게 된다. 또한 신생한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⁹³

⁹⁰*Ibid.*, 212-214.

⁹¹*Ibid.*, 214.

⁹²John Wesley, “신생의 표적,” 29-46.

6. 성화의 은혜(Sanctification)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칭의를 받는 순간부터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를 받고 난 후에 화평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하고 이루어 나아가게 된다.

첫째, 믿는 자의 회개로서 이는 칭의 전에 회개가 있듯이 칭의 후에도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구원받은 자에게도 아직 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신자의 회개는 하나의 내적 변화 곧 죄에서 거룩해지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⁹⁴ 이것은 신생 전 회개와 차원이 다른 회개로서 자신을 죄인으로 아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며,⁹⁵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무능한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다.⁹⁶ 신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부터 내, 외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육욕, 악한 성질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⁹⁷ 그러므로 신자의 회개는 중생한 사람들 속에 남아 있는 육에 속한 마음, 악에로의 경향성, 타락하기 쉬운 마음 즉 성령을 거스리는 육의 경향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개와 믿음이 성화의 과정에서 요구되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다면 불신자와 신생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웨슬리는 신생하지 못한 자는 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단언하며, 이에 비해

⁹³W. R. Canon, 『웨슬리신학』 172.

⁹⁴John Wesley, “신자의 회개,” 『총서 II』 324.

⁹⁵John Wesley, “성서적 구원의 길,” 『총서 II』 378.

⁹⁶John Wesley, “신자의 회개,” 324.

⁹⁷John Wesley, “성서적 구원의 길,” 379.

신생한 자는 죄에 순종하지 않고 항거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였다. 신생한 사람은 죄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신생한 자도 죄의 세력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죄의 지배아래 있지 않다.

둘째, 점진적이며 순간적인 성화로서 이 성화의 과정은 원칙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되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점진적인 단계로는 칭의를 포함하는 초기의 성화의 단계로부터 완전한 성화의 단계로 점차 성장해 가는 것으로서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도 그 사람의 신앙은 계속하여 성장하게 된다.⁹⁸

이처럼 웨슬리가 점진적인 발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 성화의 시작은 신생으로부터 출발한다. 신생의 순간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내적인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부은바 됨으로서 이러한 초기의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의 뿌리와 싸우는 경향성을 가지면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신자는 성령으로 인해 육의 행위와 악한 성질에서 나오는 행위를 억제 할 수 있으며 그가 죄에 대해 죽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된다. 악의 모양도 버리며 선을 향해 나아가면서 온전한 성화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단계이다.

순간적인 단계로는 신자가 점진적으로 성화를 위해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끌려 올려지는 단계가 있다. 웨슬리는 이처럼 순간적인 발전의 단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성화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울더스케이트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라 하

⁹⁸조종남, 『요한웨슬리의 신학』 134.

겠다.

7.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이것은 신자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이며 최고의 추구목표이기도 하다. 이는 그리스도인은 무죄하고 실수도 없고 연약성도 없고 유혹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뜻하며, 이는 죄를 내쫓는 사랑을 뜻하며, 영혼전체를 주관하며 온 몸을 채우는 사랑이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이다.⁹⁹ 또한 이것은 의도의 순수성이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온갖 더러움과 모든 내적, 외적 불결을 탈피하는 마음의 할례이다.

또한 이 완전은 동기와 사랑 안에서의 완전을 말하고 있다.¹⁰⁰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할 때에 그것은 인간 자신의 무지나 실수 등 제약성을 탈피하는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사랑으로의 동기가 된다고 보는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허물과 실수도 없는 순수한 후에 영화의 단계로 넘어갈 때 그것은 영화의 순간으로 미룬다. 이 완전은 순간순간 주를 의지할 때 유지되는 완전이다. 이것은 웨슬리가 죄를 이중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죄의 두 종류를 말하면서 하나는 율법을 의식적으로 범하는 것과 하나는 율법을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이는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의식적으로는 범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범하는 피할 수 없는 죄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결의

⁹⁹John Wesley, “성서적 구원의 길,” 374.

¹⁰⁰*Ibid.*, 129.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순간순간 무의식중에 짓는 죄나 실수를 주를 의지함으로 속함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8. 영화(Glorification)

선재적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는 이 땅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반해서,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내적, 외적인 연약성이나 한계성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죄의 존재까지도 멸절된 상태이므로 모든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에서 자유로운 상태이며,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기록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며, 마지막 심판에 합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모두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를 의미한다.

IV.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

이상에서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와 칼빈의 구원의 순서를 통하여 각각의 신학의 공통성과 차별 점을 알아보았다. 이로 보건데 웨슬리신학의 특징으로 본 그의 구원론을 비교해 보면 칼빈의 신학과 크게 차이는 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 칼빈의 신학을 살펴 본 바대로 그의 이중예정론의 철저한지지 속에 있는 신학을 말할 수 있다.

1745년 연회의 질문에서 우리는 어디서 칼빈주의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가? 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첫째, 모든 선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귀속시키려는 것과, 둘째, 모든 자연적 자유의지와 은총이 선행하는 모든 시점을 부인 하는 것이며, 셋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인간의 소위나 행위를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공적을 배제하는데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칭의론에서 칼빈이나 웨슬리 모두가 철저히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전적부패로 인하여 구원의 시작이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인간의 참여와 역할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하여는 칼빈과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하나님의 보편성과 함께 구원의 보편성을 내세워 칼빈주의 제한적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번은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시절 그 어머니에게 예정론을 반대하는 서신을 보냈던 바 그 어머니는 웨슬리에게 “극단적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가공할만한 도리로서 이것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것이니 너의 주장은 정당하다”라고 회답했다.

그리고 예정론은 성서의 몇몇 구절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나 성서의 다른 곳에서는 이를 반증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으며, 그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사상은 예정론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웨슬리는 예정론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그들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칼빈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옹호하는 신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에 비해 웨슬리 신학은 구원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신학자의 신앙경험의 현격한 차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에 있으므로 그의 신학은 하나님과 그 은총을 적극 긍정하는 예정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사실 그에게는 구원론의 체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 자체가 예정론의 일부분일 뿐이다. 칼빈은 자신이 갑작스런 저항의 순간까지도 굴복시키시는 체험을 통하여 그에게는 구원의 순서가 순간적 구원의 논리적 전개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었다. 칼빈의 구원은 이중예정에 의한 선택에서 확정되었으며, 선택개념에서 모든 구원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귀결된 것이다. 성도의 견인도 그런 개념의 연장선의 논리이다. 칼빈의 신학은 모든 면에서 아주 간결하다. 그것은 이중예정론사상에 근거한 결과론적인 시각의 신앙고백의 진술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웨슬리는 18세기의 인간이성의 강조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을 주장하는 합리주의의 영향과 극도로 부패한 영국의 도덕적 상황과 가정의 교육과 만민구원을 강조하는 영향 하에 그의 노력이 올더스케잇의 체험을 통하여 그는 구원의 전적인 역사를 하나님에게 두는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시간적 순서를 그의 신학에 전개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경험을 기초로 구

원의 길에서 인간의 응답적인 면을 체계화 하였다.

이 차이점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며, 칼빈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고, 칭의 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점진적 성화와 완전성화과정에서 원죄의 부패성을 해결하는 실제적 생명의 구원을 강조한 것이 그의 구원의 순서에서 드러난다. 또한 칼빈의 신학은 예정론 사상으로 구원의 순서에서 어떤 인간적 의지적 응답에 의한 하나님과의 협동도 철저히 배격한다.

A. 선택과 유기

칼빈의 선택의 교리는 유기(偶)의 교리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이다. 칼빈 자신도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고 유기(偶)의 도리를 꺼린다면, 즉 선택의 도리만을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 비웃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대성을 나타내려는 것처럼 선택의 사실만을 인정하고 유기(偶)의 사실을 부인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고 유치한 사고방식이다. 왜냐면 선택의 도리는 유기(偶)의 도리를 떠나서는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것이다”¹⁰¹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칼빈의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God’s eternal decree)이라고 말한다.¹⁰² 이것에 의하여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무차별적으로 주지 않으며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신다는 것이다. 세상이 생기기 전

¹⁰¹John Calvin, 『기독교강요Ⅲ』 419.

¹⁰²*Ibid.*, 447.

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그 분의 의지에 달려있었고, 개인들의 회개나 믿음 등을 미리보시지 않으시고 결정하신 것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여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가 택한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권적으로 갖게 하신다. 그러므로 죄인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멸망으로 유기된 자들을 아무런 기회가 없다고 말한다.

왜 사람들은 굴복하여 순종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강박한가의 이유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복종치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의 사악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할 것이나, 그들은 패역한 상태로 넘겨졌다고 말할 수 있다.¹⁰³

인간은 그들의 죄 때문에 저주에 처해 지지만, 그것은 저주에 처해지는 근원적이고 심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¹⁰⁴ 하나님의 뜻을 ‘최상의 원인’(the highest cause)¹⁰⁵으로 칼빈은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선택과 유기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칼빈은 말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한된 사람을 위한 것으로 속죄의 은총을 받는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은밀하신 목적과 계획아래 피택자만을 위해 죽으셨고 피택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그들이 일반은총에 참여하는 자라는 범위 안에서 부수적인 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전 인류에게 똑 같은 효력을 미친다는

¹⁰³*Ibid.*, 420.

¹⁰⁴F. H. Klooster, 『칼빈의 예정론』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169.

¹⁰⁵*Ibid.*, 171.

것은 아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는 만일 전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을 만큼 무한한 것이라고 말하며, 다만 그것이 특수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제한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대하여 웨슬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가 유기의 교리와 분리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유기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곧 선택의 교리와 유기의 도리는 하나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웨슬리가 칼빈주의자들로 하여금 유기의 도리가 없인 선택의 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하여 유기의 도리자체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려하였다.¹⁰⁶

웨슬리는 선택의 교리만 인정하고 유기의 교리를 인정치 않으려는 자들을 향하여 성서를 들어 이 두 교리를 인정케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 (롬 9: 21)을 믿지 않는가? 라는 칼빈주의자들의 실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웨슬리는 다시 특정한 사례를 들어 선택의 교리와 유기의 교리를 분리하는 것을 못 박고 있다. 가령 선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 즉 유기된 자가 죄와 지옥판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고 그러므로 유기를 인정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유기의 도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지를 조명한 것이라고 말하였다.¹⁰⁷

웨슬리는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선택의 교리가 성경에 있으나 이 선택의 교리는 개인들의 구원이나 유기의 도리와 함께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선택한 그릇으로 말하

¹⁰⁶John Wesley. 『총서 9』 319.

¹⁰⁷*Ibid.*, 149.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특수한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말하여지고 있으며, 이는 칼빈주의자들의 선택의 교리와 달리 이러한 선택은 영원한 구원과 무관한 것으로서 고레스 왕은 성전건축을 위하여, 사도바울은 12제자와 함께 복음의 선포를 위해 선발된 특수한 성격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런 자들 가운데 영원한 구원과 무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으나 그 중에 선택된 유다는 나중에 그의 운명이 악마의 줄개로 전락하는 것을 보아서 그 선택이 결코 영원구원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¹⁰⁸

또한 웨슬리는 이 선택의 교리는 반드시 조건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뜻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구절로는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막 16: 16)라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선택받은 자는 진실 되게 믿는 모든 신자요 버림받은 자는 성서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주의자들이 선택과 유기의 도리를 주장하는 성서적인 구절들을 통하여 유기와 선택의 교리를 하나님은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롬 9: 21의 토기장이 비유와 롬 9: 11-13의 예서와 야곱의 경우를 들어 선택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으나,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구절들의 다른 해석으로 이의 부당성을 말하고 있다.

첫째, 토기장이의 권한에 대한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웨슬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할 수 없는 목적 즉 자기의 뜻을 천명하고 선포하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처음 세장에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위해 믿어야 할 필요를 말하였고, 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사례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 5

¹⁰⁸*Ibid.*, 321-322.

장과 6장의 첫 부분에서는 그의 진실된 신자의 거룩함과 그 받을 행복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마지막 제 9장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변할 수 없는 목적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여기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인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같은 보상을 주시는데 대한 유대인들의 불평에 대한 예수님 책망이시라는 것이다.¹⁰⁹ 이 비유대로 하나님은 그들 불평자 중 하나에게 “친구여 나는 불공평하지 않았소 당신의 삶이나 받아가 돌아가시오 이것은 내 맘이요 내 돈으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나의 착한 것이 당신의 눈에 거슬리요” 라는 메시지로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실과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유대인의 주장과 비슷한 칼빈주의자들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절이라 하겠다.

둘째,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칼빈주의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의한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웨슬리는 이 말씀은 의심 없이 야곱이나 에서 그 개인들에 대하여 말함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 말한 것으로 형이 동생을 섬긴 것이지 에서 자신이 야곱을 섬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¹¹⁰ 왜냐하면 형 에서가 어느 구절에 동생 야곱을 섬겼다는 말이 없기 때문으로 이는 그들의 후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에서가 장자 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과 부친의 뜻을 어기고 결혼한 사실들을 후에 깨달았다고 보며 이는 이삭이 에서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말을 통하여 충분한 화해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서가 비록 장

¹⁰⁹*Ibid.*, 325.

¹¹⁰*Ibid.*, 349.

자 권을 빼앗겼지만 당시의 미움을 뒤로한 에서가 후일에 야곱을 만나 피차 올렸던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웨슬리는 말한다.¹¹¹ 그러므로 그는 아무사람에게도 단순히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어느 영혼이나 또 앞으로 태어날 어떤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서 어디에도 증거를 제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바로의 경우를 들어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웨슬리는 바로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가 영원히 벌을 받았다고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가 망할 이유는 그의 완고함 회개치 않음이 이유가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회개할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¹¹²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를 거두시고 그를 버림받은 마음대로 내어버렸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유기의 교리를 들어 배격하면서 유기의 교리가 성립되지 못하면 선택의 교리가 그 타당성을 잃고 만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선택의 교리와 유기의 교리는 서로 뗄 수 없는 상호 연관성을 가진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다. 웨슬리는 바로 이 점에서 유기의 교리를 근거로 해서 예정론의 부당성을 반박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지상권을 들어 설명하나, 웨슬리는 이 부분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상권이 하나님의 다른 속성과 연결이 안 된다면, 즉 하나님의 공의성과 자비성이 하나님의 지상권과 연결이 안 될 때 이는 잘못된 하나님의 지상권이라고

¹¹¹*Ibid.*

¹¹²*Ibid.*, 348.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성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지상권이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구원을 결정짓는다는 구절은 한군데도 없다고 논증한다.¹¹³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예정이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그렇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벌을 내리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고 웨슬리는 말한다.¹¹⁴ 여기에 대해 칼빈은 그의 원죄론을 들어 그의 주장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지와 능력으로 멸망할 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왜 멸망당할 자를 지으셨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 문제를 인간이 논의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라고 칼빈은 말한다.¹¹⁵

여기에 대하여 웨슬리는 예정의 교리는 계시 자체의 모순성을 안고 있으며, 이는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 18: 3을 통하여 죽는 자의 죽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신다는 구절을 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예정론자들은 인간의 완전 타락과 부패성으로 인하여 전적부패로 구원을 선택 할 수 없다고 믿는다. 웨슬리는 이러한 문제를 선행적 은총의 신학을 통하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반박한다. 또한 웨슬리는 선행적 은총론을 원죄 론과 병립하여 아담의 죄를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함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혀 손상당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¹¹³*Ibid.*, 328.

¹¹⁴*Ibid.*, 329.

¹¹⁵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I』 64.

B.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칼빈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안에 그의 은총에 따라 선택자와 유기자를 이중적으로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유기를 말한다.¹¹⁶ 칼빈은 이러한 교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둔다고 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통하여 멸망 받을 자들이 유기되는데 이 행위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며, 다른 사람을 버리시는데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외에는 아무 생각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유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다른 어떤 원인도 찾지 말라는 것이다. 칼빈은 버림받은 자들은 하등의 불평등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유기는 원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칼빈은 인류를 영원히 멸망할 하나의 무리로 보고, 그 중 일부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라고 말한다.¹¹⁷

여기에 대해 웨슬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유기의 사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신가에 대한 대답을 찾을 길이 없다. 왜냐하면 유기된 자들의 유기의 이유는 본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유기의 결정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묘사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또한 그들이 유기된 이유가 그들의 내적 죄와 악한 욕망과 거룩치 못한 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운명이라면 그들은 당초 그러한 죄에서부터 벗어날 만한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지 못했다면 주께서도 그들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구출할 수 있었는데도 유기의 교리 때문에 그들을 무저갱에 넣으신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정

¹¹⁶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 159.

¹¹⁷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I』 410.

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수 없으며 상이나 혹 벌을 예상하는 미래상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하여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전의 결정된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택자들에게 임할 때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어떤 방해나 비타협에도 결코 물러나가지 않으시고 결국은 택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구별되어 거부할 수도 없을뿐더러 항상 유효적이며,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대해 웨슬리는 예정론자들의 주장대로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세력에 의하여 동작을 한다면 그것은 그가 행동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그 행동에 대한 상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 스스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외부 세력에 의해 되어진 행위에 대하여 상벌을 논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상벌개념과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¹¹⁸

칼빈은 이 선택된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당연히 택자들만을 위한 십자가의 구속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백성이며,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역사의 결과로써 구원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제한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속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특정한 어떤 죄인들의 구원을 보장하도록 한계지어 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구원하시지 않고 죄인들의 믿음을 조건부로 용서하시는 것을 가능케 할 경우에만 용서하시도록 한계

¹¹⁸John Wesley, 『총서 9』 332.

를 지었다고 본다. 즉,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범위에서나 또는 효력에
서 제한해야만 한다. 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정론에서 제한적
구속에 대하여 성경의 어느 곳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지
않고 다만 몇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과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해의 제물이 아니라라는 말씀과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자기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살기를
위한 그 목적이 아니었다는 곳을 찾을 수 있는가 반문한다.

그러나 반대로 성서는, 첫째 그리스도는 모근 사람을 위해 죽으셨
다(고후 5: 14)는 사실과, 둘째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해
의 제물이며 우리의 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
이었다(요 9: 18)는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
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조건부의 사죄와 또는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죄와 또한 그들에 대한 구원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복된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의해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구원
이든지 또는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하
여 그의 사신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하라신 그 명령은 듣는 자들의 자격에 아무 제한이 없으신 것이다.¹¹⁹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서는 비록 말로는 “나
오라”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게 문을 잠궈 놓으
신 하나님을 말한다고 웨슬리는 말한다.¹²⁰ 그러므로 제한적 구속은 하

¹¹⁹*Ibid.*, 334.

나님의 성실하심과 진리에 반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랑과 선의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¹²¹ 이와 반대로 웨슬리는 보편적 구속을 말함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사랑에 일치되며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성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칼빈은 한번 믿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타락하지 않도록 보존하신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택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보호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은 그들이 은혜 안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 밖에 있던 자들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결코 불성실하셔서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택자들도 시험에 빠진다. 그리고 그들도 통탄할 만한 죄를 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이 그들의 구원을 잃게 하시거나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켜 놓으시지 않으신다.¹²²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셨고 그의 성령에 의해서 유효하게 부르셨으며 성화시킨 사람은 총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다. 단지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인내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구원될 것이다’라고 못 박고 있다.¹²³ 여기에 대하여 웨슬리는 이 궁극적 구원이 혈육을 가진 우리의 비위에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할 만한 말이긴 하나 이것이 성서의 뒷받침을 얻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것은 타락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독실한 신앙을

¹²⁰*Ibid.*, 335.

¹²¹*Ibid.*, 336.

¹²²A.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386.

¹²³*Ibid.*, 387.

가진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오고야 말 것이며, 혹 그가 돌아오지 않을 시는 그는 다만 신자인척 한 위선자라고 말한다고 예정론자들을 웨슬리는 꼬집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경험을 말할 수 없고 오직 성서로만 이 문제에 대해 말 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진실된 신자 즉 하나님의 판단에는 거룩하고 의롭던 사람이라도 마침내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실을 에스겔 18장 24절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만약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범죄 하면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는 기록을 통하여 반박한다.¹²⁴

둘째, 좋은 양심을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마침내 타락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에 ”내 아들 디모데야 이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사람은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떠나 믿음이 파산 하였느니라“고 딤후전 1장 18-19절에 기록되어 있다.¹²⁵

셋째, 좋은 감람나무라 할 수 있는 신령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접붙힘을 받은 자도 마침내 타락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 접붙힘 받은 가지는 두려워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힘 받은 가지도 오죽하랴 라고 로마서 11장 16-22절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사람은 실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힘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다만 외부적, 가시적 교회만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따라서 이것은 거룩한 신자들로 보아야 하며 이

¹²⁴John Wesley, 『총서 9』 353.

¹²⁵*Ibid.*, 355.

거룩한 신자일지라도 잘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칼빈주의자들은 이 감람나무는 외형적 보이는 교회일 뿐 거룩한 교회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격임을 당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여기에 대하여 웨슬리는 11장 23절을 들어 이 교회에게 계속하여 그의 인자하심 안에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아서 그들은 틀림없이 거룩한 무리라고 반증한다.¹²⁶

넷째, 참된 넝쿨에 속한 그리스도의 가지라도 마침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 사실을 요 15: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참감람나무들로서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들이 더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서 찍힌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내 안에 있지 않은 가지는 내버려 질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이며, 더욱이 말라버린다는 것은 다시 접붙힘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로 보건데 참 감람나무라도 타락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기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유리한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면서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요 다른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열매 맺는 가지는 선택된 가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유기된 가지라는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명목상의 교인이요 교회 원으로 있으나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말한다.

여기에 대해 웨슬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전혀 못 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라고 인정돼야 이 사실이 근거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증명되어야 할 쟁점을 그대로 진리로 주장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¹²⁷

¹²⁶*Ibid.*, 356.

¹²⁷*Ibid.*, 357.

다섯째,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오염에서 벗어난 자라도 미끄러져 다시 오염되고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벵후 2: 20절을 인용하여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죄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라고 말한다.

여기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또 다시 그들은 사실상 개나 돼지 같은 겉으로만 변화된 것 같은 신자들이지 사실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웨슬리는 그들이 더러운 것에서 벗어났는데도 그런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을 만한 구절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¹²⁸

여섯째, 웨슬리는 히브리서 6: 4-6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성령의 증거와 그 열매를 가진 자라도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번 빛을 받았던’이란 표현은 신자 외엔 다른 사람에겐 쓰지 않은 사실을 말하면서 다시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다”라는 말에 대해 이러한 자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 하듯이 성령의 증거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이들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말한다.¹²⁹

일곱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요, 만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지만 만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아주 그를 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¹²⁸*Ibid.*, 359.

¹²⁹*Ibid.*, 360.

‘물러감’은 멸망한다란 말이라고 증거한다. 여기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은 물러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설령 물러가도 죽는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러한 가상적 사실은 사실을 증명해 주지 못하며 성경의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처사라고 한다.¹³⁰

여덟째, 웨슬리는 계약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도 타락하여 마침내 영원히 멸망당할 수 있다는 구절로 히 10: 26-29절의 말씀을 인용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다음에도 의식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속죄의 제사는 다시없을 것입니다. 다만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을 두려움으로 기다릴 것뿐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두 세 증인에 의하여 사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경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 생각해 보시오” 라는 말씀을 근거로 계약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란 확실히 거듭난 자들을 말하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의 변명은 없으며 그들이 후에 고의적으로 범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의 계약인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것으로 형벌을 받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¹³¹

C. 예정론과 자유의지

칼빈은 어거스틴의 견해를 인용하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나 자유하지 못하며 의에 대해 자유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노예라고 말하

¹³⁰*Ibid.*, 261.

¹³¹*Ibid.*, 364.

였다.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이성과 의지의 기능으로 보며 은혜의 도움을 받아 선을 택하고 은혜가 없으면 악을 택하게 된다고 한다. 인간의 의지는 성령이 없으면 속박된 것이고 속박자인 정욕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자유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자신과 의지도 잃었고, 자유의지는 노예로 속박되어 의를 위해 무엇도 할 힘도 없다. 이제 자유의지는 옹호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짓밟는 것이며 타락한 인간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께 온전할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부패한 존재이다.¹³² 칼빈은 인간이 타락하여 구원의 복음을 스스로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적 부패에 있고 인간의 의지는 선보다 악을 선택한다라고 말함으로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의 덕성을 주장하지 못하며,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칼빈은 이처럼 어거스틴의 말을 인정하면서 자유의지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함을 주장하며 이는 교만한자를 물리치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어떤 힘이나 의견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은사가 박탈되어 자연적 은사는 부패되었으나 짐승과 구별되는 의지만 남아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어서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외적인 일반적 부르심에 더하여서 특별히 내적인 부르심을 택한 자들에게 베푸셔서 결국 불가피하게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여겼다. 어떤 사람이 선

¹³²John Calvin, 『기독교강요 I』 215.

택을 입게 되면 어느 모로 보든지 긍휼과 은혜만 나타나게 된다. 외적인 부르심은 저항할 수 있고 때때로 저항을 받으나 내적인 부르심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임하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저항할 수 없다고 보며 그러므로 회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서 시작된 신앙은 선택된 ‘양자의 영’(the spirit of adoption)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특별한 부르심에 의하여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저항할 수 없이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 분의 사역에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성공을 위해 인간의 협력을 받는 데에 의지하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은혜롭게 협력하도록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유롭고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로 나오게끔 만드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철저히 배격한 불가항력적이며 무조건적으로 부여된다고 보았다.

또한 칼빈은 이러한 불가항력적이고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가해지지 않는 구원의 예정에 대하여 그가 받은 구원은 궁극적으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철저한 배격으로 인한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바 되며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모든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능하신 권능에 의하여 믿음 안에서 지켜지며, 그 선택을 바꾸어 놓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의지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봄으로 그 구원의 종국에도 끝까지 지켜질 것이라고 말하였다.¹³³

칼빈주의 예정론은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작정해 놓고 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

¹³³D. N. Steele & C. C. Thomas, 『칼빈주의의 5대강령』 72.

니시기에 이미 구원할 자를 정해 놓으셨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인간을 구원과 생명으로 선택하고자 결정하신 사건, 꼭 은혜의 선택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다. 이 둘은 미래의 사건이 절대적 확신이라는 것 외에 같지 않다. 예정론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사건들을 말하나 운명론은 물리적 필연성에 의한 맹목적이며 비인격적인 틀이기 때문이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이 세계 질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완성되어가고 있는 하나의 통일된 계획 또는 목적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결정은 충분한 이유를 근거로 합리적 결정들이며 모든 피조물들이 지향하는 하나의 큰 목표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나 운명론은 궁극적 원인을 배제시킨다. 전 우주의 통치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맹목적 필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정론 안에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고스란히 보존된다¹³⁴. 인간이 보기에 맹목적인 것 같은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부분으로서 이 세력들이 인간의 의지까지도 장악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주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운명론은 인간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가장 현명하고도 거룩한 뜻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일체의 사건을 자유롭게 불가변적으로 예정하신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된다는 피조자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는 존재가

¹³⁴Roert M. Brown, 『도데체 무슨 뜻인가?』 조성현 역 (병천: 한국신학연구소, 1992), 89.

된다든지 자유와 우연성이 탈취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정되는 것' 과 '하나님은 일체의 상징적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다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미래에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¹³⁵라고 말한다.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에 의하여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소생되어 결국 인간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 인간의 자유의지의 허락이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적 속성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자비와 공의의 속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전적으로 자유로우며,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작정을 만족시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칼빈의 자유의지에 대한 약점은 첫째,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혼동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은 인간의 그 무슨 의지도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과 개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칼빈 자신의 사상과도 어긋난다. 둘째, 타락전에도 인간에게 주어진 의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었음에도 자유의지를 인정하전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서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칼빈 자신의 논리에 일관성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셋째, 그리스도 이느이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다르며, 구원파와 같은 극단적 칼빈주의와 무율법주의의 결정론인 율법폐기론(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적인 성향의 문제에

¹³⁵김장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양문출판사, 1988), 37.

빠지게 한다¹³⁶ 칼빈은 율법주의도 배격하지만 무율법주의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중생된 사람에게 율법은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진술한 그의 사도적 신앙과 신학에도 성도의 의지의 자유에 대한 부인은 부합되지 않는다.

칼빈의 예정교리가 종교 다원주의 즉, 감신대의 변선환교수와 같은 극단적 웨슬리주의와 같이 인간의 선행에 대한 극단적 신뢰에 따르는 구원론을 물리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은 ‘구원파’와 같은 이단사상을 배격하는데 필수적인 성경적 진리이다. 따라서 칼빈의 의지론은 그의 신학에서 구원론에 걸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은 숙명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엄현히 숙명론이라고 완강하게 반대하였다.¹³⁷ 이 당시에는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여러 저명한 학자들의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숙명론적인 인간의 자유를 부정함과 동시에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경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예정론에 대하여 현실세계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고상한 존재인 인간이 다만 정교히 제조된 시계 같은 기계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선행은총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기 이전에도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 한 후에도 전 인류의 역사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웨슬리에 의하면 타락 이후에도 자연인 그대로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인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타락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나마 어느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것은

¹³⁶정동섭, 「그것이 궁금하다」 (대전: 하나출판, 1993), 130.

¹³⁷John Wesley, 『총서 9』 377.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웨슬리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나 칼빈의 개신교 전통을 따라서 인간의 타락과 원죄를 강조하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적 회복이 가능함을 믿는다. 이 선제적 은총은 자유의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므로, 거부할 때의 책임은 인간이 지는 것이 된다. 이 자유의지는 중세 신학이 지배한 펠라기우스적 신인협조설과는 다르다.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종종 펠라기우스주의자로 오해되곤 하였다. 웨슬리가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 마치 펠라기우스의 인간의 본성적 자유의지를 주장한 것과 혼동되었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받아들여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어거스틴처럼, 자연적으로 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닌 선제적 은총으로 회복되는 자유의지를 말하였다. 어거스틴은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표현을 웨슬리가 그의 설교 ‘구원을 이름에 대하여’에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웨슬리가 선제적 은총에 대한 입장을 다른 표현으로 신인협조설로 이해될 수 있다. 선제 은총은 돌 같은 마음에 자각을 가져오는데, 이 은혜가 곧 돕는 은혜, 회개의 은혜이다.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며 이 구원은 즉각적이며, 점진적인 것으로서 의인화(justification)와 성화(sanctification)로 구분된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므로 우리는 행할 수 있으며 또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제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먼저 행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가 타고난 본성적 의지로 타락하지 않고 원죄도 없는 의지를 말하지만, 웨슬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인간의 부패성과 원죄를 믿으면서도 본성적이며 타고나는 것이 아닌 선재적 은총에 의해 회복됨을 말한다. 웨슬리가 말하는 의지는 능동적 의지가 아니라 수동적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인간은 응답하는 복음적 신인협조설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응답과 책임적 결단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웨슬리는 예정에 관해서 그의 저술들 가운데 특히 “값없이 주시는 은총,” “냉정하게 고찰된 예정론,” “예정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예정론을 비판하는데, 웨슬리의 직접적 논쟁의 원인은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통하여 만인 속죄론을 주장하면서 무조건적 유기가 내포된 이중예정을 비판했다 그리고 치열하게 논쟁이 전개된 초기에 비하여 1740년대 중반에는 논쟁 보다는 교리적 저술에 몰두하면서 ‘냉정하게 고찰된 예정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 사상을 전개하면서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다. 이 시기에도 역시 무조건적 선택을 말하는 이중예정을 비판하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말하였다.

말기에는 다시 논쟁이 심화되어 “예정에 관하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지적 예정을 명료히 제시하면서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즉, 예정논쟁이 성화와 연결되어 기독교인의 행함에 관한 논쟁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웨슬리에 의하면 선행적 은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선행적 은총의 역사가 있기에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말은 인간구원에 있어서 자연에 의해서

가 아니라 결국 은총에 의하여 되는 것으로서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면서도 멸망의 책임은 인간이 지게 되는 것이 된다. 이를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나 이는 반 펠라기우스주의나 중세기의 가톨릭 사상이 아니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저급의 근거와 힘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웨슬리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지혜를 더 잘 나타내고 선악간의 선택의 자유와 능력을 가짐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당한 대상으로서 면죄나 상벌의 책임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 그것을 후회하고 불안감을 갖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존재이기에 나오는 것이며 만일 이 자유의지를 부인한다면 목적 없는 무용지물로서 도덕이나 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¹³⁸

종교개혁자들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비관주의에 반하여 구원에 있어서 인간 편의 책임과 응답성을 약화시킨데 반하여, 신적 은총의 낙관주의와 인간의 능동적인 결단과 응답적인 참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단서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포괄적 맥락에서 극적으로 고려됨으로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신적 은총의 개념은 만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 경륜을 말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웨슬리의 자유의지론에 대한 극단적인 형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을 약화시킴으로 오히려 종교다원주의자들인 극단적 웨슬리주의자들 (감신대의 변선훈 교수)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상대화 시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약해지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¹³⁸*Ibid.*, 332.

극대화로 인하여 소위 포스트모던적인 신학들과 철학의 중추사상이기도 한 극단적 웨슬리주의로 말미암아 반 성서적인 사상들의 나타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과 웨슬리의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여 예정론에 치우치면 이원론적인 결정론에 빠지게 되기 쉽고, 맹목적인 자유의지론에 치우치면 만인구원론이나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화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성화에 대한 공통점을 찾음으로 서로 간의 이점들을 통하여 비성서적인 사상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V. 결론

A. 요약

웨슬리와 칼빈의 신학은 그들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칼빈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옹호하는 신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에 비해 웨슬리 신학은 구원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신학자의 신앙경험의 현격한 차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에 있으므로 그의 신학은 하나님과 그 은총을 적극 긍정하는 예정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사실 그에게는 구원론의 체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일부분일 뿐이다. 칼빈은 자신이 갑작스런 저항의 순간까지도 굴복시키시는 체험을 통하여 그에게는 구원의 순서가 순간적 구원의 논리적 전개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었다.

칼빈의 구원은 이중예정에 의한 선택에서 확정되었으며, 선택개념에서 모든 구원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귀결된 것이다. 성도의 견인도 그런 개념의 연장선의 논리이다. 칼빈의 신학은 모든 면에서 아주 간결하다. 그것은 이중예정론사상에 근거한 결과론적인 시각의 신앙고백의 진술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웨슬리는 18세기의 인간이성의 강조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을 주장하는 합리주의의 영향과 극도로 부패한 영국의 도덕적 상황과 가정의 교육과 만민구원을 강조하는 영향 하에 그의 노력이 울더스케잇의 체험을 통하여 그는 구원

의 전적인 역사를 하나님에게 두는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시간적 순서를 그의 신학에 전개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경험을 기초로 구원의 길에서 인간의 응답적인 면을 체계화 하였다.

이 차이점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며, 칼빈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고, 칭의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점진적 성화와 완전성화과정에서 원죄의 부패성을 해결하는 실제적 생명의 구원을 강조한 것이 그의 구원의 순서에서 드러난다. 또한 칼빈의 신학은 예정론 사상으로 구원의 순서에서 어떤 인간적 의지적 응답에 의한 하나님과의 협동도 철저히 배격한다. 그러나 웨슬리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재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정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는 신학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결코 인격적이지도 않으며, 목적도 없는 운명론적인 신학이 아니며 오히려 극단적 웨슬리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구원론에 보충되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웨슬리의 신학도 펠라기우스적인 인간의 능력을 시작으로 인간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아닌 성화를 위하여 인간의 하나님 안에서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손상이 없다는 것이다.

B. 평가

칼빈이 주장한 구원론인 예정론의 그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에서만

인간구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영원한 통치자, 보존자이시다. 이것은 신 중심적인 칼빈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확고히 유지되는 느낌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제한 칼빈은 어거스틴의 예정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이중 예정론을 말한다. 성서를 근거로 하여 구원 받을 자의 예정과 멸망 받을 자의 예정이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영원한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칼빈은 행동주의적 성화를 강조한다. 이것은 그의 『기독교강요』의 전체 맥락 가운데 예정론이 성화, 크리스천의 삶의 부분에 자리하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은 신자는 율법의 요구대로 근면하게 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선택 받은 자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제 칼빈과 비교하여 18세기 영국의 칼빈주의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웨슬리가 논쟁한 당사자들은 칼빈이라기보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었다. 웨슬리가 논쟁한 칼빈주의자들은 칼빈과 다른 면이 있다. 이중예정을 주장한 칼빈은 의인화와 성화의 두 차원적 은총을 말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였다¹³⁹. 이와 달리 18세기의 웨슬리 시대의 칼빈주의자들은 행동을 배격하는 예정신앙을 성화신앙보다 더욱 강조하여 율법의 사람 이었던 칼빈과는 달리 오히려 율법폐기론적 경향이 있었다. 웨슬리에게 예정론의 논쟁이 제기 된 것은 율법폐기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가된 의와 본성화된 의를 명료히 하면서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을 강조한 웨슬리는 성결을 해치거나 저해하는 것에 적극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칼빈은 이중예정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이중예정뿐만 아니라 단일 예정론을 말하므로 웨슬리는 이중예정만이 아니라 단일 예정도 비판했다.

¹³⁹김홍기, 『웨슬리의 구원론』 151.

웨슬리의 복음적 신인협조설을 주장한 성화론은 개혁신교회 전통의 입장에서 칼빈과 맥을 같이 하고 오히려 칼빈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성화의 실천을 설명함에 있어 칼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행 곧, 인간의지의 노예 신세를 주장하지만, 웨슬리는 신인 협조설을 성화론과 연결하여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되므로 지속적인 점진적 성화를 말하고 있다. 또한 칼빈의 편파적 성경인용과 문자적 해석의 무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칼빈도 웨슬리처럼 성서를 근거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C. 과제

오늘날의 웨슬리 연구가 머리만 커져가는 기형의 모습으로의 교회에게 이제 새로운 천 년대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교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민족 복음화를 지향하는 한국교회에게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화로까지 이어지는 구원론을 통하여,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인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한 것으로서, 인간의 책임의 강조와 성화로 이어지는 구원론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의 정립과 서로간의 오해를 없애고, 단점들을 보완하고 이해하여 칼빈과 웨슬리가 말하였던 성화로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계 속에 퍼진 기독교는 한 마음, 한 영혼의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며 이것이 바로 성서적 기독교’라고 한다. 예정론에 대한 논쟁으로 그 타협점을 찾기 힘들다고 하여 접어둔다면 실제 교회생활에서 극단적 칼빈신학의 오해로 인해 야기되는 구원파들의 율법 폐기론적 성향들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특별히 예정론에 대한 이해는 성서적 기독교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신자들의 사고와 삶을 돕기 위하여 더욱 적절히 이해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칼빈과 웨슬리가 십자가의 은총,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화, 의인화에서 인간의 공로를 전혀 배제한다는 점을 주장함에서 일치하고 있음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ttles, Lewis F. 『칼빈의 기독교 강요분석』 양건, 강명희 공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국, 1983.
- Berkhof, Louis. 『기독교 교리요약』 박수준 역. 서울: 소망사, 1980.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IV』 편집부 역. 서울: 바라, 1981.
- , 『기독교 강요 요약』 지원용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1984.
- , 『기독교강요 색인』 김문제 역. 서울: 세종서적, 1981.
- , 『기독교강요 요약』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1986.
- , 『기독교강요(초판)』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1990.
- Campbell, T. Allen. John Wesley's Conception and Uses of Christian Antiquity. Nashville: Kingswood Books, 1991.
- D. N. Steele & Thomas, C. C. 『칼빈주의의 5대강령』 고일성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David Steel & Curtis, Thomas C.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김남식 역. 서울: 정림서림, 1975.

- Gonzales, Justo L.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2.
- Harper, S. 『현대인을 위한 존 웨슬리의 메시지』 김석천 역. 서울: 도서출판 세복, 1988.
- Klooster, F. H. “칼빈의 예정론.” 『칼빈총서』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8.
- Lindström, H. 『웨슬리와 성화』 전종욱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4.
- Lohse, Bernhard. 『기독교 교리사』 구영철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8.
- Mickey, Paul A. 『웨슬레 신학의 요점』 라영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Niesel, W.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Palmer, Ediwon H. 『칼빈주의 5대 교리』 박일만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8.
- Sell, Alan P.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김경진 역. 서울: 한신대학출판부, 1982.
- ,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구원』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Starkey, L. M. *The Work of the Holy Spirit*.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9.

Wendel, Francois. 『칼빈주의 신학서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Wesley, John. 『존 웨슬리 총서』 박봉배, 조종남 역. 서울: 유니온 출판사, 1983.

-----. 『존웨슬리의 일기』 나원용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94.

Williams, Colin. 『존 웨슬리의 신학』 이계준 역. 서울: 전망사, 1983.

Yocum, Dale M. 『웨슬리 신학과 칼빈신학의 비교』 손택구 역. 서울: 보이스사, 1998.

김광식. 『기독교 사상』 서울: 종로서적, 1989.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 엠마오, 1984.

김장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대구: 양문출판사, 1989.

김진두. 『웨슬레의 실천신학』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0.

- 김하진. 『주제별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 문서선교회, 1988.
- 김흥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서울: 성서연구사, 1996.
- 나원용. “웨슬리의 구원론의 특징.” 『신학과 선교』 부천: 서울신학대학출판부, 1981.
- 박장균. “웨슬리의 은총론.” 『신학과 선교』 부천: 서울신학대학출판부, 1972.
- 박해경. 『기독교 교리 신학사』 서울: 이레서원, 2000.
- 송흥국. 『웨슬레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 『웨슬레신학과 구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 안수도. “칼빈주의 예정론.”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7.
- 우남섭. 『존 웨슬리 설교집』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93.
- 유형기. 『요한 웨슬레』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총리원교육국, 1961.
- 이성주. 『사중복음』 서울: 문서선교 성지원, 1994.
- , 『웨슬레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7.
- , 『조직신학』 안양: 성결교신학대학출판부, 1989.

이후정. “Calvin and Wesley on Predestination.” 『신학과 세계』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1991.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84.

전영식. 『예지예정과 성결』 서울: 성광 문화사, 1984.

정원태. 『열정 칼빈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조종남. 『요한 웨슬레 설교전집』 서울: 도서출판 청과, 1994.

-----, 『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한영태. 『그리스도인의 성결』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칼빈주의와 웨슬리신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황성규. 『칼빈신학의 현대적 의의』 서울: 한신대출판부, 1978.

정동섭, 『그것이 궁금하다』 대전: 하나출판, 1993.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TERIOLOGIES OF JOHN WESLEY AND JOHN CALVIN: FOCUSED ON THE SALVATION PROCESS

Choi, Young-Min

*Majoring in Systematic Theology,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Hoseo University
Cheona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ang Jik Lee, Ph.D.)

The purpose of this these is to compare the soteriologies of two great thinkers, John Calvin and John Wesley, so that two major denomination, presbyreian churches and methodist churches can learn from each other. Focusing on the salvation process of human beings, this study i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hristian perfection which guides human behaviors and provides mem and women with a vital aim of life and faith.

The soteriology is so important that without it the core of theology is missing. To believe is to be saved. Calvin and Wesley both agree that Christ was born, crucified, died, and resurrected for

our salvation; they, however, have different conception of the process of salvation. Calvin emphasizes God's unconditional salvation which can not be resisted by human beings; but Wesley call our attention to the imputed love from God which enables us to reach a never perfection of love continually. Agreeing with Calvin the decisiveness of God's initiation for our salvation, however, the empowerment of Holy Spirit in us must be emphasized. Wesley start from Calvin thesis, but goes further to highlight God's sanctifying power which enables believers to follow Christ in a responsible way.

The First chapter is to delineate the purpose and importance of the thesis and suggests a brief outline of thesis. The Second chapter concerns on some characteristic of Calvin's soteriology and the importance of God's initiation for our salvation.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some characteristics of Wesley's soteriology and the process of salvation focused mainly on sanctification process. The Fourth chapter compares two theories of salvation and tries to elabor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Finally the last chapter sume up the previous chapter and suggests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theory of salvation in terms of the confession that God's saving grace and Christian perfection are not exclusive but two side of one coin.